

# 군수 관사, 어린이집 된다

### 임실군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 사업 추진 탄력

임실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군은 30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서울코도야드바이 매리엇호텔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 6월 근로복지공단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총사업비 47억원으로 국도비가 84%를 차지해 사실상 국비 주도 사업으로 꼽힌다.

옛 임실군수 관사 터(이도리 745-1번지 일원)에 신축(연면적 1300㎡)되며, 어린이집 정원 90명 규모로 2021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이 문을 열면 중소기업 및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부모들이 영유아 자녀(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언제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를 통해 부모들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주말을 이용해 영유아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도 조성됨에 따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기대가 크다. 심 군수는 "지역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추진해 공공형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며 "어린이집 건립으로 시간제 보육 및 실내 놀이 시설 조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농기센터, 비료시험연구기관 지정

###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 따른 인프라 갖춰

순창군이 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인정받게 됐다. 군은 30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는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정기검사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 펼친 군의 노력에 따른 것이다. 군은 부숙도 측정 분석 장비와 질소 분석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관련 분석장비에 대한 연구원 활용 교육을

마치는 등 일련의 준비과정을 빈틈없이 진행했다. 현재 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영농에 필요한 토양, 비료, 농업용수, 잔류농약 등 분석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80여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신속하게 시험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비료시험연구기관은 '비료관리법'에 의해 지정받으며, 비료성분의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지자체, 대학, 민간분석기관 등 전국에서 46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자체 농업기술

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게 된 셈이다. 군은 이번 비료시험연구기관 지정을 통해 국내 생산·유통되는 비료의 물리, 화학적 성분을 검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내 생산 퇴비의 주기적인 품질검사 모니터링을 통하여 농가에 안전하고 질 좋은 퇴비를 공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설태송 소장은 "비료시험연구기관 지정을 통해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영농을 위한 분석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순창군이 최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순창군청 지하식당 화재를 가정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대응 구조·구급 종합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훈련은 순창군, 순창119안전센터, 순창경찰서, 남원시, 제7733부대 2대대, KT순창지사, 한전순창지사, 순창군 자원봉사센터, 민간기업 등 총 15개 기관 400여명이 참여했다. 재난발생 시 순창군청 자위소방대의 활동으로 재난을 수습하는 능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이번 훈련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완료될 때까지 순창119안전센터와 순창군청 자위소방대가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으로 신속한 현장대응을 펼쳤다. 이날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훈련이 실제 재난이 발생한 것처럼 생



순창군이 최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순창군청 지하식당 화재를 가정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대응 구조·구급 종합훈련을 진행했다. 동감 있게 진행되어 훈련 효과가 높게 보인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점검하여 안전한 순창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120만원봉사대가 30일 보절면 진목마을을 찾아 시장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현장체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남원시, 책임지는 봉사행정 최선

### 120만원봉사대 현장민원 30회서 50회로 확대 추진

남원시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한발 더 나아가는 소통행정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120만원봉사대 30일 보절면 진목마을을 찾아 시장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현장체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전북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기관, 단체, 민간봉사자 등 50명이 참여했으며, 이환주 시장은 장애가정을 방문해 전기수리 등 직접 체험봉사를 실시하고, 자정면 나눔 봉사를 펼치는 등 주민과의 시간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행정을 펼쳤다. 남원시의 2019 찾아가는 120활동에는 10월 현재 ▲현장봉사 총 60회 ▲전기 610건 ▲가스 354건 ▲수도 347건 ▲미용 678건 ▲농기

계 562건 ▲복지상담 127회 등 2,700여건의 봉사활동을 전개했으며, 지속적인 주민수요에 맞춰 상·하반기 30회씩 추진 예정이었던 '찾아가는 현장민원'을 하반기에는 50회로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7개 분야 14명으로 구성된 남원시 120만원봉사대는,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 취약계층을 발견 또는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063-6262-120으로 전화하면 즉시 지원에 나선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앞으로도 120만원 봉사대를 내실 있게 운영,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봉사행정을 통해 친절한 남원시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 공직자 역량강화 힐링 캠프 운영

남원시는 지난 29일~30일 1박2일 동안 시 공무원 90명을 대상으로 백두대간생태교육관에서 공직자 역량강화 힐링캠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 공직자의 조직 감성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타인과의 교감을 통해 진정한 나와의 의미 있는 만남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교육에서는 '행복한 직장을 위한 마음소통' 주제로, 머리가 아닌 마음을 다루는 능력, 조직에서 나의 가치를 높이고 조직의 '적'이 아닌 '편' 만들기 등 소통과 상생의 조직문화를 이끄는 공직자의 조직 감성역량을 강

화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공직자의 바디&건강 힐링을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바른 자세 및 건강을 위한 자가진단 노하우 습득과 하루 30분 36가지 힐링 효과를 체험하고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과 허브를 활용한 아로마테라피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체험교육프로그램으로 일상에 지친 마음을 건강하게 달래었다. 한편 류흥성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몸과 마음의 자가치유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너지 충전을 위한 힐링캠프를 지속 추진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는 친절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매아리

## 친환경농업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순창군, 800명 대상 실시

순창군이 최근 순창 향토회관에서 친환경농업인 8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인증사업자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임실, 전주 등 인근 지역 농가도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에 함께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한 것으로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것이다.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농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2년 1회 주기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농가에는 3시간, 갱신농가에는 2시간씩 반드시 수료해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단체 인증(법인, 작목반 등)의 경우 전체 구성원이 교육을 받아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 교육과정은 내년도도 계속 운영되며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업인을 위해 사이버 교육과정도 준비 중(2020년 3월중 개설 예정)에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통해 친환경 인증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친환경 농업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옥)은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30일 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서부청의 대책본부는 5개 국유림관리소와 관내 53개 시·군·구의 산불방지유관기관 등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400여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배치, 산불예방 및 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불 주원인은 입산자 실화 및 소각 산불이 전체 산불의 71%를 차지하는 만큼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관심과 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